

동백나무서 '바이오디젤' 뽑는다

중서 오일 생산용 슈퍼 품종 도입 자원화

전남산림자원연구원, 국내 증식법 연구 나서

전남산림자원연구원이 기후변화에 대비, 자원화 수준 연구의 일환으로 오일 생산용 슈퍼 동백나무 품종을 중국 장시성에서 도입해 국내 적응시험과 증식법 연구에 나섰다. 이 동백품종은 불포화지방산 함량

이 높아 최고급 식용유로 각광받으며 열매가 크고 기름 생산량이 많아 바이오디젤 유망 수종으로도 기대되는 등 경제적인 가치가 높은 임산자원이 다. 국산 재래종 동백종자와 비교할 경

우 실종량(종자 1000개의 무게)이 2230~4230g으로 1.6~3.0배 크게 증가한 11월에서 다음해 3월로 길어 밀원수종으로서 가치 또한 높다.

이외에도 단백질이 풍부하고 영양 가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고온에 안정적이고 올레산, 리놀렌산 등 불포화지방산이 90%를 차지해 식용유로

의 가치가 매우 높다. 연구소는 고흥군 대서면 강성남씨의 협조를 받아 중국에서 종자를 도

입, 나주와 고흥에서 종자 파종 현지 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이 품종은 생육온도가 일반 동백과 유사하지만 생육 한계가 명확치 않아 앞으로 구체적인 국내 적응성시험이 요구된다.

전남산림자원연구원 관계자는 "오일 생산용 동백나무 외래자원을 추가 확보한 뒤 국산 재래종 품종과 교잡육종을 통해 우리나라 기후 특성에 적합한 슈퍼 동백나무 신품종을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고흥군 대서면 강성남씨의 협조를 받아 중국에서 종자를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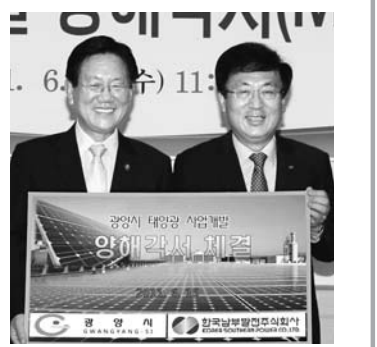
특량만에 새우 방류 고흥군은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15일 특량만 해역에 어린 새우(대하) 450만 마리를 방류했다. 군은 2차로 나로도·거금도 해역에 꽃게와 감성돔을 방류할 계획이다. (고흥군 제공)

광양시-한국남부발전 태양광 개발 MOU

광양시와 한국남부발전(주)는 15일 태양광 발전사업 공동개발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시는 인·허가 및 주민협력 등 전반적인 행정 지원과 사업개발에 필요한 공유재산의 사용을 지원하고, 한국남부발전(주)는 광양시가 추천하는 건물 및 시설물에 태양광 사업 개발을 추진함으로써 청정 태양도시(Solar & Clean City)를 조성하기로 했다.

광양시 태양광 발전사업은 산업단지에 입주하고 있는 기업의 건물 옥상과 시설물을 적극 활용하여 5MW급 용량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 1일 18MWh 친환경에너지를 생산함으로써 연간 4000t의 이산화탄소 감축과 1만 배럴의 원유 수입 대체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양 기관은 협약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한 MOU 실천 세부 추진계획을 빠른 시일내에 수립·추진함으로써 태양광 발전사업이 활성화되도록 저탄소 녹색 도시를 조성하는데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편 한국남부발전(주)은 2001년 4월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분리됐으며, 국내 총 발전설비의 12%를 점유하고 있다. /동부취재본부=박영진기자 pyj4079@

보성군 공공요금 모두 동결

보성군은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방 물가 관리를 위해 상·하수도 요금과 쓰레기종량제 봉투 가격 등 지방공공 요금을 모두 동결한다.

이번 동결조치는 정부가 3%대의 안정적인 물가관리가 가능하도록 각종 공공요금을 동결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최소한으로 인상해줄 것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보성군 관계자는 "지역주민 경제에 도움이 되기 위해 관련 요금을 올해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선상근기자 sun@

광양 우산근린공원 웰빙 테마파크 조성

오는 2014년에 광양시 광양을 우산근린공원이 '웰빙 테마공원'으로 탈바꿈한다. 광양시는 16일 2010 농민수산식품주관 소도읍성 육성 공모사업에 선정된 우산 웰빙테마공원 조

성공사 기공식을 갖는다. 시는 올해부터 2014년까지 총 100억원을 들여 광양을 우산 근린공원내에 생태통로와 전망대, 체력시설, 체육시설, 산책로 등을 조성한다.

특히 시는 생태통로를 조성해 '로드킬' 사고를 막고 야생동물들이 서식하는데 좋은 환경을 제공하게 된다. /동부취재본부=박영진기자 pyj4079@

성공사 기공식을 갖는다. 시는 올해부터 2014년까지 총 100억원을 들여 광양을 우산 근린공원내에 생태통로와 전망대, 체력시설, 체육시설, 산책로 등을 조성한다. 특히 시는 생태통로를 조성해 '로드킬' 사고를 막고 야생동물들이 서식하는데 좋은 환경을 제공하게 된다. /동부취재본부=박영진기자 pyj4079@

생산자는 제값 받고 소비자는 싼값 구입

어업인들 '새고막 주식회사' 만들었다

87명 14억 출자- 창립 총회

전남의 대표 양식품종인 새고막 산업화를 위한 어민출자 형태의 주식회사가 공식 출범했다.

전남도는 15일 오후 여수시에서 박준영 도지사와 김충석 여수시장, 주주 어업인, 수산기관 단체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수 등 4개 시군 어업인이 참여하는 '새고막 주식회사' 창립총회를 가졌다.

새고막 주식회사는 여수·순천·고흥·보성지역 4개 시군 새고막 양식 어업인 87명이 14억원을 출자해 주주로 참여했다. 어업인 출자 주식회사는 장흥 무산강과 완도전복, 신안 새우젓, 여수녹색멸치, 신안우럭 주식회사에 이어 여섯번째다.

전남은 연간 1만6500t의 새고막을 생산해 전국 생산량(1만9800t)의

83%를 차지하고 있으며 생산액도 449억원으로 갯벌을 이용한 패류 양식어업중 가장 생산성이 높은 대표 품종이다. 시군별 생산량 점유율은 여수·순천 48%, 고흥 30%, 보성 14% 등이다.

전남도는 이 때문에 생산과 유통이 하나가 된 주식회사를 만들 경우 가격과 시장 지배력에서 대의 경쟁력이 충분하다고 보고 지난해부터 새고막 주식회사 설립 필요성에 관한 어업인 설명회와 사업성 평가 등을 거쳐 이번에 어업인들의 자율적인 출자를 이끌어냈다.

새고막 주식회사는 그동안 황해 위주로 유통해왔던 방식을 지양하고 가정주부 등 소비자 선호에 맞는 다양한 가공제품을 개발하는 등 소비자의

지변 확대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남도와 여수시로부터

각각 받는 6억원의 지원금과 자체 예산 3억원 등 총 15억원을 투입해 여수 율촌면에 6512㎡ 규모의 저온저장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새고막 주식회사가 출범함으로써 복잡했던 유통구조가 개선돼 생산자는 제값을 받고 소비자는 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중간상인에 의해 시세가 좌우되고 제매 생산대금을 받지 못하는 불안을 해소하고 가격 안정과 빠른 대금 결제로 어업인의 소득 보장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 관계자는 "새고막이 팔리지 않는 비수기(여름철)에 생산된 원물을 가공제품으로 개발해 판매할 경우 생산자·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동부취재본부=김창희기자 chkim@

전 북

전북을 수출 120억달러 달성 '올인'

11개국 바이어 초청 오늘 수출 상담회

車·LED·의료용품 등 다양화

전북도가 올해 수출목표 120억 달러 달성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전북도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전북지역본부는 16일 오후 5시 30분 리베라호텔 백제홀에서 우수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및 계약체결식을 갖는다.

지난해 8월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된 이날 수출상담·계약체결식은 해외마케팅 참가기업 10개 업체와 거래의향이 있는 11개국 25명 바이어를 초청해 7500만 달러 상당의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특히 이날 자리는 기존의 일반바이어

어 초청행사의 틀에서 탈피, 수출유망 분야와 경쟁력 있는 기업을 선정해 전문 바이어를 맞춤형으로 초청한 것이 특징이다.

전북도 수출은 자동차 중심에서 LED·의료용품·자동차 설비 등으로 품목이 다양화 되고, 중국·미국·일본 중심에서 러시아·이란 등으로 시장이 다변화 되고 있는 추세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을 추진, 사전·사후 마케팅까지 관리하는 책임마케팅을 구현해 전북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키워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정읍시 정우면 초강리 농민들이 우리밀을 수확하고 있다. 올해 밀은 지난 겨울~봄 저온탓에 알맹이가 없는 '불임 백수' 피해를 입어 농민들의 표정이 어둡다.

냉해 입은 밀 수확량 30% 감소

작년 흉작이여 올해 즐작... 인건비도 안나와 농민 울상

"겉보기에는 멀쩡하지만 실상은 알곡이 절반도 안돼. 완전 '맹탕'이야. 모 심으려고 할 수 없이 베어내지만, 수확하고 뒤고 완전히 갈아엎어 버리고 싶은 맘뿐이지."

가을걷이한 논에 파종한 밀이 불철 냉해를 입어 수확량이 30%가량 줄 것으로 예상돼 농민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15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번 주부터 밀 수확이 이뤄지는 가운데 불철 저온과 출수가 잦은 강우에 의한 '냉해'로 작황이 부진해 수확량이 전년보다 20~30% 떨어질 것으로 추산된다.

도내 밀 재배지는 익산 1200ha, 군

산 966ha, 전주 560ha, 정읍 635ha, 김제 625ha 등 총 5500ha인데 이중 절반 정도가 냉해를 봐 알맹이가 맺히지 않고 흰색을 띠는 이른바 '불임 백수' 현상을 보인다.

이는 밀 이삭이 생기는 3월 하순~4월 상순 최저기온이 영하 3도 이하로 내려가 냉해를 봤고, 5월 초~중순 비가 자주 내리면서 밀 알맹이가 제대로 여물지 못했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피해현황을 정밀조사해 저온과 출수가 잦은 강우에 의한 '냉해'로 작황이 부진해 수확량이 전년보다 20~30% 떨어질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피해 정도가 크고 면적이 넓어 실질적인 보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농민의 주름은 심사리 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농업인 한미자(50)씨는 "예년에는 겨울철 노는 땅에 밀을 심어 2000만 원 정도를 벌었는데 지난해 '흉작'에 이어 올해 '졸작'으로 본전이나 건질 지 모르겠다. 실상 기계 값과 인건비도 안 나온다"며 한숨을 쉬어냈다.

밀밭에서 알곡 없는 쪽정을 숨어 내던 한 농민은 "올해 밀 농사꾼들은 세 번 울게 생겼다"며 "수확할 때 알맹이가 없어서 한 번 울고, 쪼그라든 밀 알곡을 건조하면서 또 눈물 짓고, 마지막으로는 밀을 턱도 없는 가격에 팔아넘길 때 평평 울게 생겼다"고 허탈한 심경을 표현했다. /연합뉴스



김제경찰 주민소통 현장 치안행정

김제경찰이 현장중심의 치안 행정을 펼쳐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김제경찰서 조용식 서장과 각 과장들은 14일 신풍지구대를 시작으로 관내 12개 지구대 파출소를 대상으로 현장중심 치안정책 확립을 위한 현장체험을 실시했다.

조 서장은 직원들과 112 순찰

차에 동승해 신고 접수처리와 각 지역을 순찰하고, 마을 노인정 등을 방문해 주민들과 격의없는 대화를 나눴다.

조용식 서장은 "앞으로 정기적인 현장체험을 통해 경찰상 정립과 함께 조직의 화합을 통한 주민 만족 치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홍윤선기자 hnews@

뉴스 브리핑

쌀 직불금 신청 이달 30일까지 연장

전북도는 2011년도 쌀소득 등 보전직불금 지원등록 신청기한을 보름가량 연장해 이달 30일까지 받기로 했다.

당초 등록신청 기간은 지난 4월 15일부터 이달 50일까지 60일 간이었다.

전북도는 "농사일 때문에 바쁜

농민이 제때 직불금 신청을 못해 수령받지 못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신청기간을 늘리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해 도내 쌀소득 등 보전직불금 신청농가는 9만4193 농가(14만1426ha)에 2204억원이었다.

/전북취재본부=김철수기자 knews@

군산 서부권에 천연·인조잔디 축구장 조성

유동인구에 비해 체육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군산 서부지역에 축구장과 부대시설이 조성된다.

군산시는 서군산 지역 주민과 공장 근로자의 여가활동을 돕기 위해 내년 말까지 산복동 국제 문화마을 입구 3만4000㎡에 85억원의 들여 축구장 2면(천연잔디 1곳·인공잔디 1곳)과 주차장, 샤워

장 등의 부대시설을 짓기로 했다. 이 사업은 군산시에서 사들인 부지에 현대중공업이 축구장을 만들어 시에 기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군산시 관계자는 "서군산 지역에 축구장이 조성되면 스포츠 동호인들의 여가 활동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박금식기자 nogusu@

김제시-농진청 원예특화작목 육성 협약

김제시와 농촌진흥청 국립 원예특작과학원은 15일 시청에서 원예특화작목 육성을 위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원예작목 육성, 기술 협력, 공동사업 개발 등을 추진하고 실무협의회 구성과 연도별 실행사항을 수

립할 계획이다. 김제시는 감, 고사리, 채소 등의 원예작목 육성을 지원하고, 원예특작원은 고품질 신품종 육성, 생산비 절감기술 개발, 원예·특용작물 전문가 현장 지도 등을 맞춘다. /전북취재본부=홍윤선기자 hnews@

정읍 고모네 장터 내일 '덧밭 먹거리 잔치'

정읍 농·특산물 소품몰 '정읍 고모네 장터'(www.gomone.co.kr)는 개장 8주년을 맞아 17일 북면사무소 뒷편 매장에서 '덧밭 먹거리 잔치'를 연다. 이날 잔치에서는 서울 광진구 구의3동과 자매결연을 비롯해 지역주민이 직

접 생산한 오디와 매실, 복분자 등 각종 농특산품과 지역업체가 공식품을 저렴하게 판매한다. '고모네장터'는 지속적으로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해 상호관매망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ks@